

“군산형 뉴딜 사업 발굴”

군산시 정책자문단, 2주 동안 분과별 릴레이 토론회 지역 인프라 활용, 각 분야 선제적 대응 ‘머리 맞대’

군산시가 정부 역점사업인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임준 시장 주재로 군산형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자문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 종합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군산시장을 비롯해 군산시 정책자문단 최연성 단장과 6개 분과위원장 및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향후 5년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부 투자가 집중될 계획인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미래자동차, 고군산군도 관광 인프라 등 기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군산형 뉴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이를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사업 발굴을 위한 분과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10일에는 정책연구 전문가를 초빙, 한국판 뉴딜 대응 주요 정

책 방향 등에 관한 강의 및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 관련 부처별 정책 자료 사이트 활용법,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등 실무자 교육을 병행해 지역주도형 뉴딜사업을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각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재생에너지 사업, 배달의 명수 등을 뉴딜 계획과 연계해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군산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난 23일부터 휴관중이던 익산지역 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4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1개소가 오는 27일 전면 개관한다.

익산시 장애인복지시설 8곳 운영 재개

27일부터... 방역물품 구비 등

익산시 내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가 오는 27일부터 일제히 운영을 재개한다.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휴관중이던 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4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1개소가 오는 27일 전면 개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재개관을 앞두고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물품을 모두 구비했고,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시설 내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을 비치하여 방역을 철저히 하는 한편 자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또한 장애인들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기저질환자가 다수임을 감안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생활속 거리두기, 방문자 대장 작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복지관 식당은 탄력적으로 운영 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관은 개별서비스(무료치과사업, 장애인재활사업,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등) 프로그램은 우선 운영하며, 신체 접촉이 많은 재활 운동실은 시간대별 이용 제한 규정을 마련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한다.

한편 장애인복지관은 약5개월 휴관 기간 동안 찾아가는 도서대여 서비스, 맞춤형 키트(꾸러미) 지원, 매일 안부 확인을 겸한 모네펠링을 실시하여 장애인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본격 가동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차별화

익산시가 23일 고용안정과 일자리발굴을 위한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익산시는 올해 4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식품, 자동차, 홀로그램, 고용서비스 등 4개 분야에 5년간 총 400억원을 확보해 그 중 고용서비스 분야중 하나로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를 구축했다.

일자리센터는 익산상공회의소 1층에 자리잡고 센터장 기업지원팀, 취업연계팀 등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센터 운영은 (사)창업공유지원단에서 수행

하게 된다.

센터장은 익산시 일자리정책과장이 겸임하며, 시 직원들이 파견(기업지원팀장)근무하게 된다.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일자리를 발굴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일자리센터와 차별화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방문자 위주의 수동적인 취업알선 기능보다는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직접 기업을 방문해 고용수요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기업과 구직자를 현장에서 연결하는 현장 면접을 실시한다.

또한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한 경영진단과 노후장비 교체 등 근로

환경 개선사업도 직접 수행하며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고용현장 모니터링과 산업 동향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할 예정이다.

이울러 센터 내에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 집적시킨 종합일자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5년간 2,000개의 일자리 발굴을 목표로 하여, 구직자에게 윈윈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 및 인력채용, 취업 등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이번이 출범하는 일자리센터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핵심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코로나19 극복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익산지역자활센터 협약

정신건강증진 · 자살예방 등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장승호)와 익산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탁균)가 자활 근로대상자들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하여 '생명사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3일 협약을 토대로 자활 근로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익산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대상자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자살고위험군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즉시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활 근로대상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자살 및 우울예방교육, 생명사랑교육 등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장승호 센터장은 “지역사회에 소외된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생명사랑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자활 이용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전화 063-841-4235)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자살예방 상담 및 정신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 및 야간에는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과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를 이용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터장은 “지역사회에 소외된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생명사랑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자활 이용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전화 063-841-4235)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자살예방 상담 및 정신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 및 야간에는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과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를 이용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총력

상수도 시설물 긴급 점검

군산시가 최근 인천 서구지역 일원 수도물에서 잇따라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수도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내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0일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배수지 9개소, 가압장 6개소, 소규모 가압장 18개소 등 주요 상수도 시설물을 중심으로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오는 30일까지 시설물의 오염 여부, 청수 상태, 소독살균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물 수질 민원 발생 시 긴급 출동·복구를 위해 현장대응팀을 구성해 비상 근무 체제로 돌입, 민원 발생에 대응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매일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던 수도물 표본수,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상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으로, 긴급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 요소 발생 시 즉시 보수 및 조치할 계획이다.

진희병 수도사업소장은 “우리는 수도물은 고산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된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산 정수장은 인천지역 유충 발생 원인인 황실탄여과장치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무더운 여름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 시설물 점검뿐만 아니라 수도물 안심 확인제 및 수도꼭지 수질 점검 등 수질 모니터링도 강화해 수질오염 가능성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 소식통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군산시 본격 토지매입

군산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토지매입 추진 행정 절차를 완료해 사업이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산시는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장기 미집행 공원 27개소, 531만㎡ 중 7개소 379만㎡를 공원으로 존치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의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그동안 공원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 164억 원을 투입, 25만㎡의 사유토지를 매입 완료했으며, 향후 5년간 750억 원을 투입해 108만㎡의 공원 내 사유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공원 해제지역은 20개소, 152만㎡로 해제지역 선별은 토지적성검토, 이용도 장애 공원 이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선별했다. 읍면지역 아산에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설 근린공원 5개소와 도시계획도로 해제로 접근이 불가능한 도시개발사업 미시행 지역 어린이공원 15개소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린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시정업무 보고에서는 주요 현안 사업 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따른 업무 추진 상황 등을 청취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지원 대책, 지역형 인구정책 수립 등 집행부에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노력했다.

또한 2차 본회의에서는 김경진 의원이 익산시 각종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박철원 의원이 여산휴게소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김충영 의원이 만경강 문화관 조성시 자전거 관련 컨테츠 반영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